



비상교육
박안수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C

6

함께 만드는 세상

(1) 두근두근 내 인생 _원작 김애란/각본 최민석 외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1~013쪽

- 01 (1) ○ (2) × (3) × (4) ○ (5) ○ 02 ④
- 03 ④ 04 택시 05 (1) ○ (2) × (3) ○ (4) ○ (5) ○
- 06 ② 07 ④ 08 장면(scene)
- 09 (1) ○ (2) × (3) ○ (4) × (5) ○ 10 ⑤
- 11 ④ 12 ④ 13 ㉔: 제약, ㉕: 희곡
- 14 (1) ○ (2) ○ (3) × (4) ○ (5) × (6) ○ 15 ④
- 16 ㉔ 17 환상 18 (1) ○ (2) ○ (3) ○ (4) ○ (5) ×
- 19 ④ 20 ④ 21 시한폭탄
- 22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 23 (1) × (2) ○ (3) ○ (4) ○ (5) ○
- 24 ⑤ 25 ㉔ 26 ㉔: 병원, ㉕: 설렘
- 27 (1) ○ (2) ○ (3) × (4) ○ (5) ○ 28 ④
- 29 ④ 30 ①
- 31 (1) ○ (2) ○ (3) ○ (4) ○ (5) × (6) ○ 32 ⑤
- 33 ⑤ 34 ⑤ 35 (1) ○ (2) ○ (3) × (4) ○ (5) ×
- 36 ④ 37 ① 38 병원(병실)
- 39 (1) ○ (2) ○ (3) ○ (4) × (5) ○ 40 ①
- 41 ② 42 ㉔: 따로따로, ㉕: 생생, ㉖: 일상적

- 01 (2) 이 글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시나리오로 인물의 심리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3) 극 갈래인 희곡과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02 이 글은 시나리오로,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여 쓴 문학 작품이다.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 오답 해설** ①, ③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작가의 실제 경험이 주로 드러나는 글은 수필이다. ⑤ 시나리오는 구체적 영상으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해야 한다.
- 03 대수는 어린 나이에 동갑내기인 미라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 05 (2) 뭐가 돼야 할지 잘 몰라서 체고에 갔고, 사실 태권도하면서 좋았던 것은 도복밖에 없었다는 대수의 말을 통해 볼 때,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 06 대수는 아름의 병을 마냥 슬프거나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07 대수가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고마워요. 공부들 열심히 하고.”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경계한다고 볼 수 없다.

- 08 시나리오는 장면(scene) 단위로 구성된다.
- 09 (2) 아름은 잘 웃고 농담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4) 대수와 미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름을 평범하게 대하고 있으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10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은 대부분 현재형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오답 해설** ①과 ②는 시, ③은 연설문, ④는 자서전이나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 11 아름과 미라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름이 미라를 마음속으로 어려워한다고 볼 수 없다.
- 12 미라와 대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아름이 자신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콧방귀를 끼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3)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을 괴롭히다가 그의 아버지인 대수가 나타나자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수마저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 (5) 대수가 영검결에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행동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5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 몰라, 암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라는 말에서 불량한 여학생 1은 아름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우 귀찮아하는 말투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이 글에서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을 ‘할배’, ‘외계인’, ‘아버님’, ‘골룸’ 등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놀리고 있다. ‘효자 아저씨’는 나이 들어 보이는 아름에 비해 젊어 보이는 대수를 놀리는 말이다.
- 17 이 장면에서 긴장감 있게 진행되던 갈등은 한순간에 웃음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전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 속 상황과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유머도 잃지 않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18 (5) 사람들의 시선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미라이다. 아름은 항상 아파서 엄마를 걱정하게 하는 상황에 주눅이 들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 하며 피하고 싶어 한다.
- 19 S# 15에서 주치의가 한 말로 보아 아름은 언제 심혈관이 터져 쓰러질지 모를 정도의 위태로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20 바로 앞에 있는 지시문인 ‘화가 난 목소리로 미라에게’와 ‘대체’라는 부사의 쓰임으로 보아 주치의는 비난과 안타까움의 심정을 담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1)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미라가 아닌 아름이다. 미라는 타인의 시선에 위축된 아름을 격려하고 있다.
- 24 미라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해설** ③ 미라와 달리 아름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 한다.

25 ㉔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힘들어하는 아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아름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사회 만들기'라는 창작 의도에 비춰 볼 때, 이 글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가 적절하다.

27 (3) 아름이 심하게 기침을 하게 되자 촬영은 자연스럽게 중단된다. 승찬은 촬영 불발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촬영을 강행하지는 않는다.

28 시나리오에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 및 인물의 심리 등을 드러낸다. 부분적으로 내레이션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29 아름의 상태가 나빠져 촬영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걱정하는 승찬의 모습에서 미라는 패정함을 느끼고 있다.

30 ㉔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나리오 용어는 '컷투(cut to)'로, 대개 같은 장소에서의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오답 해설 ② 클로즈업(close-up), ③ 몽타주(montage), ④ 오버랩(over-lap), ⑤ 인서트(insert)에 대한 설명이다.

31 (5) 짱기는 아름이 자신의 진정한 친구인 장 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이다.

32 이 부분에서는 아름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 장 씨와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33 두 사람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소재로 한 격의 없는 농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4 장 씨는 비록 아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름과 자신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름을 친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5 (3) 아름이 사진 속 서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행동을 통해, 아름이 서하가 보낸 사진을 보고 설레며 서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아름이 건강한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 속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 속의 장면이다.

36 아름이 서하의 사진 위에 손을 포개며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 같아지는 효과를 연출하지만 실제 아름과 서하가 만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부분에 몽타주가 사용되지도 않았다.

37 아름이 서하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전자 우편을 보내자 서하는 손 사진만을 보냈다. 그렇지만 아름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는 기색은 찾을 수 없다.

39 (4) 이 글에서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로 제시한 것은 모두 여덟 개이다.

40 아름의 "살고 싶어지는 때?"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라는 대사로 보아 ㉔에는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라는 물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1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로 나열한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이다. 아름은 선천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30쪽

03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없으며, 등장인물의 성격은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05 상연으로 소멸하는 순간 예술은 희곡이며, 시나리오에는 상연을 위해 필름으로 보존되는 영구 예술이다.

06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희곡이며, 시나리오에는 장면(scene)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몽타주 기법이 나타나 있다.

13 아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32~041쪽

1 ①	2 ④	3 ④	4 ⑤	5 해설 참고
6 ③	7 ⑤	8 ④	9 ③	10 ①
11 몽타주	12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순간들			
13 시나리오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장면의 전환이 비교적 자유롭다.				
14 해설 참고	15 해설 참고			

1 이 글은 시나리오로, 영화 촬영을 위한 대본이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대본은 희곡이다.

오답 해설 ④ 시나리오에는 소설 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물의 심리, 사건 전개 등이 장면과 대사에 의해 드러난다. ⑤ 시나리오 용어를 사용하여 장면의 전환이나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한다.

2 이 글에는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장애를 지닌 아름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된다.

오답 해설 ③ 이 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 대한 연민의 필요성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3 이 글은 극에 속하는 시나리오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술자를 대리인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서사 갈래인 소설의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②, ⑤ 이 글에는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제시되어 있고, <보기>에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시한 이유는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은 내레이션, 즉 NAR.(Narration)

이다. ㉔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을 삽입하는 것이다.

5 모범 답안

부	부	는	아	름	을	알	아	보	고	반	가	워	하	며
호	의	적	인	태	도	를	보	이	고	있	다	.	여	자
아	름	의	걸	모	습	만	보	고	협	오	감	을	표	출
고	있	다	.	불	량	한	학	생	들	은	아	름	의	입
장	을	배	려	하	지	않	고	함	부	로	말	하	며	괴
름	히	고	있	다	.	여	자	와	불	량	한	학	생	들
문	제	점	은	걸	모	습	만	보	고	다	른	사	람	을
존	중	하	지	않	는	태	도	를	보	이	고	있	다	는
것	이	다	.	이	를	통	해	독	자	들	에	게	사	회
약	자	를	대	하	는	올	바	른	태	도	가	무	엇	인
성	찰	하	고	반	성	하	게	한	다	.				

6 아름이 떨리는 손으로 서하의 편지를 열어 보는 이유는, 서하에게 사진을 요청한 뒤에 오는 편지라 무척 긴장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난 네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라는 서하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아름이 사진 속 서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7 ‘햇빛에 역광으로 비치는 음영에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하. 청순한 얼굴의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를 통해 아름의 상상 속 모습에서 서하의 얼굴이 또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8 S# 50.에는 평범하고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인 아름이 서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떠나 자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9 <보기>는 소설로 서술자인 ‘나’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반면, 이 글은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오답 해설 ⑤ <보기>에서는 1인칭 서술자인 아름이 직접 서하에 대해 실례는 감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아름이 서하의 목소리를 환청으로 듣는 것으로 설정하여 아름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0 ㉔에서는 아름과 서하의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해야 하므로,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의 음악이 가장 적절하다.

14 모범 답안

㉔	에	서	미	라	는	아	름	이	자	신	의	상	태	나
감	정	을	먼	저	내	세	우	는	또	래	아	이	처	럼
굴	기	를	바	라	고	있	다	.	㉔	에	서	미	라	는
아	름	이	당	당	한	태	도	를	갖	기	를	바	라	고
있	다	.												

15 모범 답안

<	보	기	>	1	>	은	시	나	리	오	로	,	S#	는
영	화	를	구	성	하	는	장	면	의	번	호	를	나	타
고	,	공	간	적	배	경	과	시	간	적	배	경	을	드
려	내	준	다	.	<	보	기	>	2	>	는	서	정	갈
인	시	로	,	유	사	한	문	장	구	조	의	반	복	을
통	해	운	율	을	형	성	하	며	주	제	를	드	러	내
있	다	.	<	보	기	>	1	>	과	<	보	기	>	2
통	해	장	애	인	이	나	가	난	한	사	람	과	같	은
사	회	적	약	자	의	삶	에	대	해	생	각	해	보	게
하	는	사	회	·	문	화	적	가	치	를	느	낄	수	있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42~049쪽

- 1 ⑤ 2 ⑤ 3 ③ 4 (1) 이 글의 아름과 유사한 대상은 할머니로, 두 사람 모두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에서 유사하다. (2) 이 글과 <보기>에는 모두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성찰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나 있다.
- 5 ① 6 ⑤ 7 ① 8 유사한 화면을 활용하여 현실과 상상 장면을 연결하였다. 9 해설 참고
- 10 ④ 11 ④ 12 해설 참고

1 이 글은 극 갈래의 하나인 시나리오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심리 등을 전달하는 것은 소설 갈래의 특징이다.

2 미라가 아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은 아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미라가 아름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겨나가기 바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려는 용기가 드러나 있다. ②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로 가리는 것에서 병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하는 아름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③ “뭐가 참피한데, 뭐가?”에서 아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미라의 당당한 성격은 알 수 있다. ④ “괜한 말 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친다.”에서 아름의 후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3 미라는 아름을 생각해서 나가 있으라고 하지만 아름은 그냥 이야기해 달라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려는 용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치의의 진단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의연한 자세가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5 S# 49.에서 아름이 서하의 사진을 화면 가득 키워서 본 것은 서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오답 해설 ④ S# 50.에서 서하의 소리로 처리되었던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라는 문장이 S# 51에서 전자 우편 속 ‘아름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라는 문장으로 연결된다.

6 S# 52.에서는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를 아름의 목소리와 함께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7 ㉔은 아름과 대수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로 나열한 순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볼 때에 해당한다. ③ 푸른 하늘의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에 해당한다. ④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에 해당한다. ⑤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 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에 해당한다.

9 모범 답안

㉔	에	는	서	하	의	편	지	를	기	다	리	는	아	름
의	조	바	심	이	드	러	나	있	다	.	반	면	에	㉔
에	는	서	하	에	게	사	진	을	요	청	한	뒤	에	은
편	지	이	므	로	아	름	의	긴	장	감	과	기	대	감
드	러	나	있	다	.									

10 Cut to(컷 투)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오답 해설 ① 페이드인(fade-in) ② 큐(cue) ③ 인서트(insert) ⑤ 몽타주(montage)

11 작가의 표현 방법은 사회·문화적 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모범 답안

고	당	당	해	힘	든	상	황	에	서	도	공	정	적	이
또	한	투	병	중	인	아	름	에	게	용	기	와	기	운
을	복	돌	아	주	려	는	심	리	를	알	수	있	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 _유정식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53~055쪽

- 01 (1) ○ (2) ○ (3) × (4) ○ (5) ○
- 02 ① 03 ⑤ 04 불온한 이단자 05 예시
- 06 (1) ○ (2) × (3) ○ (4) ○ (5) ○ (6) ○ (7) ○ (8) ○
- 07 ① 08 ① 09 일상생활

01 (3)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은 기존의 천동설을 부정한 것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서로를 보완하는 이론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에서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통해 그가 자신의 주장을 굽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에서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갈릴레이는 기존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고, 존 스노는 콜레리균의 매개체가 공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주장했다. ㉤ ㉤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3 이 글에서는 대조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으며 두 학설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글의 목적도 아니다.

오답 해설 ㉠ 이 글에서는 갈릴레오와 존 스노를 예로 들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과학사적 사실인 지동설과 콜레리균의 전염 경로 등을 예로 제시하여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 처음 부분에 독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인 갈릴레오를 예로 들어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에서 권위 있는 인물인 영국의 시인 밀턴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6 (2) 글의 소재나 주제가 같다고 하더라도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가)와 (나)의 경우 주제와 목적은 같지만 독자와 글이 실릴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07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맥락에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이 있다.

08 (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실천 방법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가)는 신문의 독자 투고란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어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나)의 글쓴이는 자신이 청소 당번을 할 때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9 (나)의 글쓴이는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려면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056쪽

03 보고문은 설명하는 글에 속한다.

04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의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르다.

09 설득하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은 ‘소재 선정 - 쓰기 맥락 분석 - 자료 수집과 근거 마련 - 개요 작성 및 글쓰기 - 고쳐쓰기’이다.

14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도 있다.

15 글쓴이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명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58~065쪽

- 1 ④ 2 ② 3 ② 4 ④ 5 ①
- 6 ⑤ 7 해설 참고
- 8 <보기 1>에서는 권위 있는 인물인 밀턴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9 ④ 10 ⑤ 11 ⑤ 12 해설 참고
- 13 ⑤ 14 ① 15 ③ 16 ⑤

1 논설문과 같이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방법은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다.

2 (가)의 ‘갈릴레오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를 통해 그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고 더 이상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은 (가)에서, ㉢과 ㉣은 (다)에서, ㉤은 (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 ‘곤욕’은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을 의미하는 말로, ㉡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는 모두 '곤혹'이 적절하다.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뜻한다.

4 ⑥ '이상한 말'은 기존의 체계나 통념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동설, 새로운 가설, 새로운 생각, 이단적 발상'과 의미하는 바가 유사하다.

오답 해설 '천동설, 사회적 통념, 기존의 제도나 학설, 편협한 시각'은 모두 기존의 통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⑥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5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독자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가)에서 독자들에게 익숙한 갈릴레이를 사례로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④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는 모두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의 설득력을 높이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다. ⑤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면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6 설득하는 글에 제시되는 근거 자료는 타당성, 객관성, 사실성, 신뢰성 등이 있는 것만을 선별해야 한다. 글쓴이 개인의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는 설득하는 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7 **모범 답안**

이	글	의	주	제	는	새	로	운	생	각	을	수	용
하	는	문	화	와	풍	토	를	조	성	해	야	한	다
것	이	다	.	이	를	뒷	받	침	하	기	위	하	여
의	학	문	체	계	인	천	동	설	을	부	정	하	고
지	동	설	을	주	장	했	던	갈	릴	레	이	와	기
지	배	적	통	념	을	깨	고	클	레	라	의	전	업
로	를	설	명	한	존	스	노	를	사	례	로	들	고
있	다	.	이	근	거	들	은	새	로	운	생	각	을
용	하	자	는	주	제	를	효	과	적	으	로	뒷	받
준	다	는	점	에	서	타	당	성	이	있	다	.	

9 예상 독자가 학급 학생들이라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면 전문 용어를 활용하는 것은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 매체에 올릴 글임을 고려할 때 환경 재단의 누리집 주소를 첨부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친구들에게 댓글을 달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 ③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낯선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시각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는 것은 적절하다. ⑤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고자 설득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10 • 소연: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학급에서의 일화를 제시하여 학급 친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현준: 학급에서 쓰레기 분리배출함 만들기, 이번지 모아서 재 활용하기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 준영: 이 글은 맞춤법에 맞게 작성되었으므로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정원: 문단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단을 잘 조직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의진: 이 글에서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 시원: 환경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나 덴마크와 관련된 자료의 구체적 출처나 제목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쓰기 윤리를 지켰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11 환경부에서 제시한 국정 과제와 업무 계획이 담긴 보고서는 학급 학생들이라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못한 자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는 모두 글의 주제와 글의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한 수집 자료로서 적절하다.

12 **모범 답안**

<	보	기	1	>	은	신	문	의	독	자	투	고	란	에	
실	리	는	공	식	적	인	글	이	므	로	격	식	체	를	사
용	하	여	공	손	하	게	독	자	를	설	득	하	는	효	
가	있	는	반	면	,	<	보	기	2	>	는	학	급		
게	시	판	에	자	유	를	계	올	리	는	글	이	므	로	
적	격	식	체	를	사	용	하	여	친	근	감	을	주	고	
														있	

13 (가)에는 글쓴이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기를 것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자제할 것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4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제는 글 쓰기 전에 쓰기 맥락을 분석할 때 하나의 주제만을 선정해야 한다.

15 (나)에 환경 보호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④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자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장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6 설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재 선정 - 쓰기 맥락 분석 - 자료 수집 - 자료 선별 - 개요 작성 - 글 쓰기 - 교차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본문 066~071쪽

소단원 심화 평가

1 ③ 2 ④ 3 ⑤

4 갈릴레이는 사형을 당해 죽음에 이르렀을 것이다.

5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

6 ② 7 ⑤ 8 ① 9 ④ 10 ③

11 ⑤ 12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론에 해당한다. 13 해설 참고 14 해설 참고

1 ③은 설명하는 글 중 기사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설득하는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2 (마)에서는 (가)~(다)에서 제시한 예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마) 역시 (라)와 동일하게 과학 분야의 사례를 조직과 사회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라)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문화적 동질성이다. 새로운 생각에 의해 구성원들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6 (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나)는 재활용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1) 국어의 문법 요소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7~083쪽

- 01 (1) ○ (2) ○ (3) × (4) ○ (5) ○
- 02 ④ 03 ② 04 ③
- 05 아버지-주체, 할아버지-객체
- 06 (1) ○ (2) ○ (3) ○ (4) × (5) × 07 ②
- 08 ④ 09 (1) 현재 시제 (2) 미래 시제 (3) 과거 시제
- 10 지금, 읽는 11 (1) ○ (2) ○ (3) ○ (4) ○ (5) ○ (6) ○ (7) ×
- 12 ④ 13 ④ 14 (1) 고 (2) 라고
- 15 영호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 16 (1) ○ (2) ○ (3) ○ (4) ○ (5) ×
- 17 ④ 18 ⑤ 19 목적어, 부사어
- 20 (1) 도망치던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2) 오늘 경기의 승패가 민수에 의해 갈렸다.

01 (3)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어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

02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은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03 조사 '께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지만 '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인다.

04 부사격 조사 '께'와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 표현의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의 문장이다. ②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진지', '잡수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의 문장이다. ④, ⑤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각각 '할머니'와 '이모부'를 직접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의 문장이다.

06 (4) '이랬다, 학생이었다'에서 보듯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도 과거 시제를 표시할 수 있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없는 것은 현재 시제 표시이다. (5) '장차'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07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를 말한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것은 미래 시제이다.

오답 해설 ⑤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 '오늘'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08 '주저앉아 버렸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었-'을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이다.

오답 해설 ① 관형사형 어미 '-르'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형태로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②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었-'과 '-던'을 사용하였으므로 과거 시

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기를 각각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와 (나)의 예상 독자가 각각 직장인과 학급 친구들로 다르기 때문에 실천 방안도 그에 따라 달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와 (나) 모두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④ (가)와 (나)의 쓰기 맥락은 글의 목적과 주제 면에서는 일치하지만 매체와 예상 독자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장 표현과 제시된 실천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⑤ (가)가 격식체를 사용한 것과 달리 (나)는 비격식체 중 '해제'로 작성되어 있어 친근감을 주고 있다.

7 (가)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결론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독자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에서 이를 직장 내로 한정짓고 있지는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글의 목적은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설득이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예상 독자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 구어체를 사용하였으나 은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글쓴이가 독자들의 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론에서 주제를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①은 (가)에서 '구호'뿐인 환경 보호가 아닌 '실천'을 할 때라고 한 것과 상충되는 반응이다.

9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지는 주장을 마지막 문단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완곡하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0 **오답 해설** ㉔ 명령형이 아니라 '-부시다'라는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① '우리가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 환경 오염도 줄여줄지 않을까?'는 설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1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므로 서론에서 활용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주제나 예상 독자와 관련된 일화나 흥미로운 사회적 상황을 서론에 제시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③, ④ 관용어나 속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우화 등을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끄는 데 효과적이다.

13 모범 답안

자	료	1	은	서	론	부	분	에	서	근	거	로	활
용	할	수	있	다	.	왜	냐	하	면	환	경	문	제
심	각	성	을	효	과	적	으	로	제	시	할	수	있
때	문	이	다	.	반	면	자	료	2	의	흥	부	대
은	예	상	독	자	인	학	생	들	이	학	급	에	서
천	하	기	어	렵	기	때	문	에	자	료	로	서	적
지	않	다	.										

14 모범 답안

<	보	기	1	>	은	예	상	독	자	가	직	장	인	이
므	로	음	식	물	쓰	레	기	줄	이	기	나	대	중	교
이	용	과	같	은	일	상	생	활	에	서	의	실	천	방
을	제	시	하	고	있	다	.	반	면	에	,	<	보	기
2	>	는	예	상	독	자	가	학	급	친	구	들	이	므
쓰	레	기	분	리	배	출	과	같	이	학	급	에	서	실
할	수	있	는	방	법	을	제	시	하	고	있	다	.	

제에 해당한다. ③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였으므로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⑤ 동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니-'을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09 (1)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 '지금', 동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였다. (2)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였다. (3)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 '어제',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였다.

11 (7)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원작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인용한 말이나 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12 '들으면서'는 문장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 '-으면서'를 사용한 것으로 완료상이 아니라 진행상에 해당한다.

13 ④는 직접 인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으로,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간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에는 종결 어미 '-(으)라'로 바꾸어야 한다. → 철수가 그만 먹으라고 말했다. ②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 민서는 "내일 그가 오겠다."라고 말했다. ③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 민수가 "가격이 얼마예요?"라고 물었다. ⑤ 간접 인용절이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날 때에는 종결 어미 '-라'로 바꾸어야 한다. → 현수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4 (1)은 간접 인용이므로 조사 '고'를 써야 하고, (2)는 직접 인용이므로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15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는 먼저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고'를 사용한다.

16 (5) 피동 표현을 쓸 때 피동사에 '-아지다/-어지다'나 '-게 되다'를 또 붙여서 이중 피동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피동 표현은 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

17 ④는 주어가 행위를 제함으로 함을 표현하는 능동 표현으로, '깨뜨리다'는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단어가 아니라 어간 '깨-'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뜨리다'가 결합된 형태이다.

18 '읽혀지지'는 피동사 '읽히다'에 '-어지다'가 붙은 형태로, 이중 피동 표현이 쓰였다. 따라서 '이 책은 어려워져서 잘 읽히지 / 읽히지 않는다.'로 고쳐 써야 한다.

20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꾸면 된다.

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은 객체 높임법이다.

07 형용사의 경우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없고, 동사의 경우에 선어말 어미 '-니-/는-'을 쓴다.

11 직접 인용 표현을 할 때에는 큰따옴표 뒤에 조사 '라고'를 쓴다.

12 행위의 주체가 주어인 문장은 능동문이다. 피동문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인 문장이다.

15 피동문을 쓰면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할 수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86~089쪽

1 ④	2 ③	3 동생이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4 ①	5 ②	6 ②
7 ③	8 (1) 민지가 의자에 앉고 있다. (2) 민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	
9 ③	10 인용한 글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11 실망한 나에게 어머니께서는 실패란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12 ④	13 ①
14 ②	15 ②	

1 ④는 주격 조사 '께서'와 '께서'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였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는 모두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2 ①은 피동 표현, ②은 인용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은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용존이를 낮추고 선생님을 높여, '용존아,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로 고쳐야 한다. ②은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를 높여,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로 고쳐야 한다. ③은 시간 표현이 바르지 않으므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시제를 일치시켜, '헤영이는 아까 도서관에 갔어.' 또는 '헤영이는 이따 도서관에 갈 거야.'로 고쳐야 한다.

4 '저는 집에 갑니다.'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인 표현으로 상대 높임법이 사용된 것이다. '저'는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부모님을 높인 표현이다. ③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다. ④ 청자인 이모를 높이기 위해 '해요체'를 사용한 상대 높임 표현이다. ⑤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한 객체 높임 표현이다.

5 ②는 사건시(재민이가 훌륭한 어른이 됨.)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이므로 미래 시제가 맞다.

오답 해설 ① 현재, ③ 현재, ④ 과거, ⑤ 현재 시제가 나타나 있다.

6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①은 추측, ②은 의지를 나타낸다.

7 ①은 '-고 있다'라는 진행상에 기본형 그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②은 '-어 버리다'라는 완료상에 과거 시제 선어말

OX로 팩트 체크

본문 084쪽

01 높임 표현은 상황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에 따라 나뉜다.

03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문장의 목적어

어미 '-었-'이 결합했으며, ㉠은 '-아 가다'라는 진행상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했다.

9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지시어도 문장에 맞도록 적절히 바꾸어야 하나, <보기>의 예에서는 지시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었다. 이를 위해 큰따옴표를 표시하지 않았고(㉠), 인용절의 종결 어미를 문장에 맞도록 바꾸었으며(㉣), 조사 '고'를 썼다(㉡). 즉 인용문의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한 것이다.(㉤)

12 제힘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인 문장을 능동문이라 한다. ㉣는 '소음이 발생했다.', '피해가 크다.'라는 능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해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 한다. ㉠, ㉡, ㉢, ㉤는 모두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된 피동문이다.

13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에서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가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나)에서 민수는 물을 낭비한 주체가 동생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동문을 사용하였다.

14 ㉡는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 피동사 '잊히다'에 또 '-어지다'가 결합된 형태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므로 '잊히지'로 고쳐야 한다. ㉢ 피동사 '헐리다'에 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므로 '헐렸다'로 고쳐야 한다. ㉣ 피동사 '불리다'에 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므로 '불리자'로 고쳐야 한다. ㉤ 피동사 '발굴되다'에 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므로 '발굴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15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 예이다. ㉠의 목적어인 '붕어빵'이 ㉣의 주어인 '붕어빵'으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 능동문 ㉠의 주어 '내가' 피동문 ㉣에서는 생략되었다. ㉣ ㉠의 서술어 '팔다'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된 형태의 피동사 '팔리다'가 ㉣의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 피동문에서는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할 수 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90~095쪽

- 1 ㉣ 2 ㉣ 3 (1)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여서 표현하지 않았다. (2) 해주가 할아버지께 연세를 여쭙었다.
- 4 ㉣ 5 ㉤ 6 ㉡ 7 ㉣ 8 ㉡
- 9 해설 참고 10 ㉢ 11 ㉠ 12 ㉤ 13 ㉤
- 14 ㉢ 15 ㉢ 16 해설 참고

1 <보기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을 때 사용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인 '언니'가 아니라 화자인 '나'보다 할머니의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객체 높임을 사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 객체 높임법이 바르게 사용된 문장이다. ㉡ 문장의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였다. ㉤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다' 대신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2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께서'라는 주격 조사와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 '는'은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보조사로 높임 표현과 관련이 없다. ㉡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저, 제' 등과 같은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4 ㉣에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리고'를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가신다'는 주체 높임으로 문장의 주어인 동생을 높이는 표현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대화의 상대인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나'를 '저'로 고쳐야 상대 높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문장의 주체인 '삼촌'을 높여야 하므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떠나신다'로 고쳐야 한다. ㉢ 문장의 부사어인 '어르신'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문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여쭙었다'로 고쳐야 객체 높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할머니'가 주체 높임의 대상이므로 '발' 대신 특수 어휘 '진지'를 사용해야 한다.

5 '손을 들어 흔들고서'는 손을 들어 흔드는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난 완료상에 해당한다. '-고서'는 완료상에 쓰이는 어미이다.

오답 해설 ㉠ 은서가 그림을 그리는 사건과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다. ㉡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본 사건이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 강한 바람이 부는 사건이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미래 시제이다. ㉣ 빨래가 마른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6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고,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진행상이다. ㉡에서 철수가 책을 읽는 사건이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보다 앞서므로 과거 시제이고(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어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책을 보고 있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진행상이다.(-고 있다.)

오답 해설 ㉠ 현재 시제이며 정훈이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 현재 시제이며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완료상에 해당한다. ㉣ 과거 시제이지만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난 완료상에 해당한다. ㉤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7 선어말 어미 '-었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현재와는 단절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므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그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 '어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였다. ㉡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본'은 동사 '보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과거 시제이다. ㉤ ㉠의 '-았-'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았-'은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다.

8 ㉠의 '먹어 간다'와 ㉡의 '사용하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와 ㉡의 '써 버렸다', ㉢의 '가 버렸다'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9 모범 답안

격	식	체	는	공	식	적	인	장	소	나	정	중	하	게
격	식	을		차	려	야	할	때	주	로	사	용	한	다.
반	면	비	격	식	체	는	상	대	적	으로	격	식	을	갖
출	필	요	가	없	을	때	주	로	사	용	한	다.		

10 ㉓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자기 책 좀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이다.

오답 해설 ㉓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은 ‘오늘’에 해당하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오늘’로 바꾸어 써야 한다.

11 ㉑은 비격식체인 해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㉒: 하계체(격식체) ㉓: 해라체(격식체) ㉔: 해요체(비격식체) ㉕: 하요체(격식체) ㉖: 하십시요체(격식체)

12 ㉑의 서술어는 ‘했었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㉑ ㉒, ㉔은 능동 표현, ㉓, ㉕은 피동 표현이다. ㉖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뀐다. 따라서 ㉑의 주어 ‘그의 마지막 특점’이 ㉒에서는 ‘그의 마지막 특점으로’와 같이 부사어로 나타나 있다. ㉓ 능동문의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된다. 따라서 ㉔에서 ‘했었다’라는 행위의 대상인 ‘그 집’이 ㉕에서는 주어가 되었다. ㉖ 피동사 ‘했었다’에 ‘-게 되다’가 아니라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이다.

13 ㉑의 ‘걸리다’는 ‘시간이 들다’라는 뜻의 동사로 ‘걸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가 아니다. 걸다 5의 뜻을 지닌 피동사가 사용된 예로는 ‘목숨이 걸린 싸움판이니 도대체 신명이 날 리가 없었다.’를 들 수 있다.

14 직접 인용에 사용하는 조사는 ‘라고’가 맞으므로 ㉑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오답 해설 ㉑ ㉑의 주어는 ‘나는’으로 능동문이므로 피동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참가하였어’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㉒ 수상하지 못한 ‘나가’ 실망한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㉒처럼 미래 시제로 쓰면 안 된다. 따라서 ‘실망한’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㉔ ㉔의 주체는 ‘어머니’로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말씀해 주셨어’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㉕ ㉕은 안근문장으로, 안근문장의 생략된 주어 ‘나는’과 동일한 주어를 가진다. 따라서 ㉔과 같이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어색해지므로 ‘무엇을 배웠는지’로 고쳐야 한다.

15 ㉑의 직접 인용문에서는 아들이 ‘계시다’를 활용하여 주체인 ‘나’를 높이고 있지만 간접 인용문에서는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㉑: 직접 인용문의 “내일 떠나고 싶다.”라고는 간접 인용문이 되면서 ‘내일’이 ‘오늘’로, 조사 ‘라고’가 ‘고’로 바뀌었다. ㉒: 직접 인용문의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는 간접 인용문이 되면서 1인칭인 ‘나’가 3인칭인 ‘자기’로, 지시 표현 ‘이곳’이 ‘그곳’으로 바뀌었다.

16 모범 답안

간	접	높	임	이	란	높	여	야	할	대	상	의	신
체	부	분	이	나	소	유	물	,	주	체	와	관	련
사	물	을	높	여	주	체	를		간	접	적	으	로
것	을	말	한	다	.	<	보	기	>	에	서	는	계
를	사	용	하	여	,	교	장	선	생	님	의	말	씀
높	이	고	있	는	데	,	간	접	높	임	에	서	는
의	뜻	을	가	진	어	휘	를	사	용	하	지	않	으
로	,		계	시	겠	습	니	다	를		있	으	시
다	로	고	쳐	야	한	다	.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99~101쪽

- 01 (1) ○ (2) ○ (3) × (4) ○ (5) ○
- 02 ㉓ 03 ㉓ 04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 05 (1) ○ (2) ○ (3) ○ (4) ○ (5) × 06 ㉔
- 07 ㉔ 08 ㉓
- 09 이어적기, 동국정운식, 끊어적기, 현실음

01 (3)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하였는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습-/~줍-/~습-’,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이-/~잇-’ 등이 쓰였다.

02 ㉔에서 글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쓰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03 ‘ㅅ, ㅈ, ㅊ’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은 17세기부터 소멸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 ‘ㅆ, ㅈ, ㅊ’ 등과 같이 된소리로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두 자음군이 소멸되면서 된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오답 해설 ㉑ 중세 국어에는 ‘스름’처럼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 ‘스름’과 같이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었다. ㉒ ㉔에서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쓰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5 (5) <용비어천가(1447년)>와 <세종어제훈민정음(1459년)>은 15세기에 쓰였고, <소학언해(1587년)>는 16세기에 쓰인 것으로 모두 세로쓰기가 적용되었다.

06 (가)에서 ‘ㅅ, ㅈ, ㅊ’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㉔ ‘보르매’, ‘고모래’, ‘바르래’ 등을 통해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새·로·스·물·여·뽕·字·중·롤·링·노·노·니’에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는 세종 대왕의 창조 정신이 나타나 있다.

08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는 ‘ㅅ·성·宗·宗·御·영·製·경’처럼 한자어를 중국어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으나, (나)에서는 ‘孔·공·子·지·曾·중·子·즈’처럼 한자어를 현실음에 맞게 표기하였다.

오답 해설 ㉑ 15세기에는 ‘발조툰’으로 표기되었으나 16세기에서는 ‘방’이 소실되어 ‘발조운’으로 표기되었다. ㉒ 띄어쓰기는 1896년 최초의 한글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㉓ ‘비·르·소·미·오(비룻-+-옴+-이오)’를 보면 음성 모음 ‘-’ 다음에 명사형 어미도 음성 모음이 들어간 ‘-옴’이 와야 하는 데 양성 모음이 들어간 ‘-옴’이 쓰였다. ㉔ ‘졸·오·사·뒤’, ‘일·출·을’을 보면 받침이 앞 음절에 쓰이고 있다.

- 01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 02 ‘ㅎ’, ‘ㄷ’, ‘ㅎ’, ‘빙’, ‘ㅁ’와 같은 음운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 06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현대 국어로 올수록 점점 약화되었다.
- 11 8중성법은 종성에 오는 자음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ㅎ’의 여덟 자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용비어천가>에서는 ‘꽃’에서 보듯이 ‘ㅅ’이 아니라 ‘ㅈ’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8중성법이 아니라 초성에 쓰이는 자음이 종성에도 다 쓰일 수 있다는 원칙인 ‘중성부용초성’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3 ‘어엿·비’는 ‘가엿게, 뽀얗게’라는 뜻이며, 현대 국어에 와서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 14 <소학언해>에서는 ‘일:흙:을, ㅁ:춤:이니·라’와 같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끊어적기가 확대되고 있으나, ‘거·시·라’와 같이 여전히 이어적기도 나타나고 있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04~109쪽

1 ④	2 ③	3 ②	4 ③	5 ④
6 ⑤	7 ④	8 ③	9 받조론	10 ④
11 ②	12 ⑤	13 이어적기, 끊어적기, 동국정운		
14 ③	15 ②	16 ②	17 해설 참고	

- 1 상성은 점이 두 개로 현대 국어의 장음으로 변했다.
- 2 ㉔에 사용된 주격 조사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㉓의 ‘은’과 ㉔의 ‘은’은 모두 보조사이다. ㉓은 ‘남+은’, ㉔은 ‘을+은’으로 분석되며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각각 다른 형태의 보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② ㉔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에 따른 표기이다.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은 형태는 ‘바름+에’이다. ④ ㉔은 ‘뽀+에’가 이어적기된 것으로 음성 모음 ‘누’가 사용된 명사형에 조사 ‘에’가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㉔은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⑤ ㉔에는 어두 자음군 ‘ㅂ’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탐구 내용이다.
- 3 ‘기쁜’, ‘바르래’ 등에서 보듯이 끊어적기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중세 국어의 ‘하다’는 ‘많다’의 의미로, 현대 국어의 ‘하다(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피디’가 ‘피지’로 표기되지 않은 것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스물’이 ‘스물’로 표기되지 않은 것에서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쁘들, 뿌메’ 등의 예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세성종종영형정’에서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엿·비’ 등에서 방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쁘들’, ‘몸홍노미’에서 8중성법에 따른 받침 ‘ㄷ’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8중성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뿌메’ 등에서 이어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받조·은’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 전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에서보다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오답 해설] ① ‘아·니:흙·이’, ‘비·르·소미·오’ 등에서 명사형 어미 ‘-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한자음은 동국정운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 발음한 소리에 가깝도록 ‘孔·공주·직’, ‘曾중주·직’, ‘父·부모:모’ 등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 6 ㉔가 포함된 구절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로 해석되므로 ㉔의 ‘에’는 비교적 조사이다. 그런데 ⑤는 ‘성군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도 경천근민하셔야’이므로 이때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따라서 ㉔의 ‘에’와 그 기능이 다르다.
 [오답 해설] ①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모’ → ‘라’는 비교적 조사 ② ‘중국의 옛 성군이 하신 일과 꼭 맞으시니’ → ‘이’는 비교적 조사 ③ ‘바다가 어젯밤보다 희기가 더 하고’ → ‘도곤’은 비교적 조사 ④ ‘회양 옛 이름과 마침 같구나.’ → ‘이’는 비교적 조사
- 7 ㉔는 ‘많다’를 의미하는 ‘하다’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변화한 의미 이동의 사례이다.
- 8 ‘말썸·미’의 경우 ‘말썸 + 이’가 이어적기된 것으로 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불·휘’의 경우 ㉔에 해당한다. ② ‘내·히’의 경우 ㉔에 해당한다. ‘내·히’는 ‘ㅎ 종성 체언’으로, 말음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종성 ‘ㅎ’이 드러나지 않다가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존재가 드러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 ④ ‘노·미’의 경우 ‘놈 + 이’가 이어적기된 것으로, ㉔에 해당한다. ⑤ ‘孔·공주·직’의 경우 ‘공주 + 이’로 ㉔에 해당한다.
- 10 ㉔의 ‘이·리’는 ‘이루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말로, 이어적기 된 형태의 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은 ‘남 + 은’, ②는 ‘바름 + 에’, ③은 ‘심 + 이’, ⑤는 ‘바름 + 에’의 이어적기 표기이다.
- 11 ㉔ ‘닐어’로 적지 않고 ‘닐러’로 적은 것으로 보아 거듭적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굴으샤디, 일흠을, ㅁ춤이니라’ 등으로 보아 끊어적기 현상이 뚜렷해졌으나, ‘거·시·라’에서 보듯이 이어적기도 여전히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씩’로 보아 어두 자음군이 여전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비·르·소미·오’와 같은 표기를 통해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㉔ ‘曾중주·직’와 같은 표기를 볼 때, 동국정운식 표기가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㉔ ‘아·니 :흙’, ‘한·더개:흙’ 등으로 보아 명사형 어미로는 ‘-을’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으)ㅁ, 기’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명사형 어미이다. ㉔ ‘받조은’이라는 표기를 통해 ‘ㄷ’의 소실이 아니라 ‘ㅎ’의 소실을 알 수 있다.
- 12 (가)의 ‘피디’를 ‘피지’로 쓰지 않은 것과 (나)의 ‘현더케’를 ‘현저케’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와 (다) 모두 구개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4개의 음운 중 (다)에는 ‘·’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세 자음은 모두 사라졌다. 따라서 (나)에 나타나는 ‘빙, ㅎ, ㅎ’이 (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세·성宗종御·영형·정’과 같이 동국정운식으로 표기되었던 한자음이 (다)에서는 ‘後:후세:세와 같이 현실음에 맞게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는 이어적기 방식만이 사용된 것과 달리 (다)에는 ‘일흠’, ‘ㅁ춤이니라’ 등에서 보듯이 끊어적기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철저히 지켜지던 모음 조화가 (다)에서는 ‘비르소미오’에서 보듯이 다소 혼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나)에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로는 ‘비르소미오’가 있다. ‘아·니 :흙’에서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을중주·조’는 (나) 시기에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② ‘발조·온’은 (나) 시기에 ‘방’이 소실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④ 끊어적기(분철)와 거듭적기(중철)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⑤ 이어적기(연철)와 끊어적기(분철)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15 ‘계 = 저 + ㅣ’로, 현대어로 ‘자기’로 풀이되므로 ‘ㅣ’는 관형격 조사이다. ‘내 = 나 + ㅣ’로, 현대어로 ‘내가’로 풀이되므로 ‘ㅣ’는 주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중통國려’는 ‘중국’으로 풀이되므로 ‘예’는 비교적 조사이다. ③ ‘서르’는 오늘날의 ‘서로’와 달리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진 형태이다. ④ ‘퍼디’는 오늘날의 ‘퍼지’와 달리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다. ⑤ ‘니르고저, 니겨’는 오늘날 ‘이르고저, 익혀’와 달리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16 ‘을중주·조드·려’는 ‘증자계’의 의미로 ‘드려’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③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 ‘형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낯’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어 의미가 축소된 단어이다.

17 모범 답안

음운상의 특징은	단어의 사용되었다는 것이
어두 자음군이	사 용 되 었 다 는 것 이 고
표기상의 특징은	이 어 적 기 가 적 용 되 었 다
는 것이다.	단 어 를 현 대 어 의 형 태 로
고치면	‘뜻을’이 된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10~115쪽

- 1 ① 2 ③ 3 ③ 4 ④ 5 ⑤
- 6 ④ 7 ④ 8 ② 9 ⑤ 10 ④
- 11 ③ 12 ①
- 13 ㉠: 1 (주격), ㉡: 드려(부사격), ㉢: 이(관형격), ㉣: 툴(목적격)
- 14 ㉠: 공조, ㉡: 부모
- 15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난다.(혼용되었다.)

1 ‘ㅇ’은 쌍이음으로,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쓰던 옛 글자이다. 어두 자음군이 쓰인 단어는 ‘·쁘·들’, ‘·뿌·메’ 등이다.

2 ㄷ에 따르면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했으므로, ‘어엿·비’에서 ‘엿’의 중성 ‘ㅅ’은 ‘ㄷ’과 다르게 발음되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수·비’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 ‘방’이 들어가 있다. ② ㄴ에서 ‘ㅁ’은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쁘·들’의 ‘ㅁ’은 ‘ㅂ’과 ‘ㄷ’ 두 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히·여’의 첫음절과 둘째 음절의 방점이 다르므로 성조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⑤ ‘·뿌·메’는 ‘쁘-(어간) + 음(명사형 어미) + 예(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말로 연철 표기가 사용되었다.

3 ‘전츠로’는 근대 국어 시기 이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다. ‘퍼디’는 ‘퍼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② ‘·, ㅎ, ㅂ, ㅇ’ 등의 음운이 소실되었다.

4 ‘ㅁ·생’와 같이 한자를 먼저 적고 오른쪽에 한자음을 적었다(ㄷ). 또한 당시에는 한자음을 중국 한자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했으며(ㄱ), 음절에 초·중·중성을 반드시 갖춰서 표기했다(ㄷ).

오답 해설 ㄴ: 음절에 중성이 없는 경우에는 ‘ㅇ(엿이음)’이 아닌 ‘ㅇ’을 적었다.

5 ‘ㅎ’은 목구멍소리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한 글자이다. 또한 이 글을 통해 ‘ㅎ’이 ‘ㅎ’과 구별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 ‘몽’의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봉몽’은 모음으로 끝난 단어이다. 따라서 ‘ㅣ’를 써야 한다. ㉡: ‘말’의 ‘ㅁ’는 양성 모음이므로 ‘울’을 써야 한다.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이’를 써야 한다.

7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고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2인칭일 때 ‘-ㄴ다’가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ㄴ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② 중세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모두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었다. ③ 중세 국어의 미래 시제 표현에는 ‘-겠’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8 된소리 계열은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존재했다.

9 ‘얼굴’은 ‘형체’라는 뜻에서 ‘낯’이라는 의미로 변화했으므로 의미 축소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달아’는 ‘다르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도 ‘다르다’란 의미로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다만, 현대 국어에서는 ‘달라’로 표기가 변했을 뿐이다. ② ‘어린’은 ‘어리석다’의 뜻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③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므로 의미 이동의 예이다. ④ ‘어엿다’는 ‘가엿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므로 의미 이동의 예이다.

10 중세 국어의 ‘조초미’와 현대 국어의 ‘쫄음’을 비교하면, 중세 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를, 현대 국어는 형태소의 본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 ‘마리’는 현대어로 ‘말’로 풀이되므로, ㉡은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닐오디’는 첫머리에 ‘ㄴ’이 온 것으로 보아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 ‘어단’은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ㄷ’으로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⑤ ㉤ ‘노퐁’은 ‘ㄴ-ㅇ-ㅇ’으로 분석된다. 양성 모음 ‘ㅇ’이 사용된 앞말에 양성 모음 ‘ㅇ’이 사용된 어미가 온 것으로 보아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11 ㉠: ‘브얌’은 끝소리가 자음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브얌 + 이 → 브얌미’가 된다. ㉡: ‘불휘’는 끝소리가 반모음 ‘ㅣ’이므로 아무런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휘’가 된다. ㉢: ‘대장부’는 모음 ‘ㅣ’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으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장뷔’가 된다.

12 ㉠: ‘울음’의 이어적기 표기 ㉡: ‘웃어’의 이어적기 표기 ㉢, ㉣: 끊어적기 표기 ㉤: 이어적기(이스편)와 끊어적기(잇오편)가 중첩된 거듭적기 표기

13 ㉠: 공조 + ㅣ(공자가) → 주격 조사 ㉡: 증조 + 드려(증자에게) → 부사격 조사 ㉢: 효도 + 이(효도의) → 관형격 조사 ㉣: 부모 + 툴(부모를) → 목적격 조사

14 ㉠: 선어말 어미 ‘-샤-’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공조’를 높이고 있다. ㉡: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객체인 ‘부모’를 높이고 있다.

15 ㉔: 것 + 이라 → 거시라: 이어적기가 적용되었다. ㉕: 뭉침 + 이나라 → 뭉침이나라: 끊어적기가 적용되었다.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19~121쪽

- 01 (1) ○ (2) ○ (3) ○ (4) × (5) ○ (6) ○
 02 ㉕ 03 ㉕ 04 다양한, 모아쓰기, 음성 인식
 05 (1) × (2) ○ (3) ○ (4) ○ (5) ○ (6) ○ 06 ㉕
 07 ㉑ 08 자정 적용을 일으킴.

- 01 (4) ㉓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02 이 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추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책정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3 글쓴이는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를 간결하게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가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 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고, 한국어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종류, 기관의 수, 학생 수 등을 밝히고 있다. ③ 전 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수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교육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04 ㉓에서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5 (1) 글쓴이는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를 한글 대신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06 4~6에서 국내에서의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후, 7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4의 첫 문장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국내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7의 첫 문장에서 유추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자들이 스스로 언어생활을 바로잡아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㉓에서 우리의 의사소통 문화를 성찰하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쓸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㉔에서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얻고 있다.
- 07 이 글에서는 국어사전의 사용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국어사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점이다.

08 글쓴이는 오염된 물과 공기가 스스로 정화되듯이 언어 사용자들도 스스로 언어를 바르게 고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OX로 팩트 체크

본문 122쪽

- 02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
- 04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07 설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사랑하고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일 뿐 실제로 그들이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글쓴이는 '그러나 실제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 10 ㉓에서 글쓴이는 세계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세계인의 사고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다듬어 나가는 것도 한국어의 세계 화라고 하였다.
- 14 우리 조상들은 넉넉히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 15 '노코'를 '손기적'으로 순화한 것은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24~129쪽

- 1 ㉔ 2 ㉑ 3 ㉔ 4 ㉕ 5 ㉑
 6 ㉑ 7 ㉑ 8 ㉕ 9 지구촌 시대
 10 사회자가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 / 사회자가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11 ㉔ 12 ㉕ 13 ㉕ 14 해설 참고

- 1 이 글에 가설-검증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해설** ① (라)에서 언어생활의 자정 작용을 오염된 물의 자정 작용에서 끌어와 유추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설명으로 글의 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④ (다)에서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현대가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면서 시대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고 (나), (다)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2 이 글은 설명문이므로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 오답 해설** ②는 수필, ③과 ④는 논설문과 같은 설득하는 글, ⑤는 문학 작품이나 수필 등을 읽을 때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 3 (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시각 자료를 통해 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며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수치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제시된 내용이다. ④ 이미 글로 제시된 내용이므로 글쓴이의 예견에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부수적 효과는 얻을 수 없다.

5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이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짐을 보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와 관련이 있을 뿐 한국어 사용자 수와는 관련이 없다.

6 한글이 알파벳과 달리 자음과 모음을 모아쓴다고 언급했을 뿐 알파벳과 달리 배우고 익히기에 수월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 배급(配給):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품을 일정하게 나누어 소비자에게 팔.
• 보급(普及): 널리 퍼서 골고루 알리거나 사용하게 함.

8 한국어를 구분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비판은 글의 가운데 부분에 ㉠에 제시되어 있으며 끝 부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에서는 한국어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11 ㉠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12 속담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되므로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을 추상화하여 전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속담은 우리 조상의 담화 관습을 잘 드러내는데, 속담을 사용하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속담의 표현이 간접적이면서도 완곡하기 때문에 청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13 대화 예절에서 경청의 자세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중요한 담화 관습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4 모범 답안

이	봉	정	은	광	해	군	이	나	랏	일	을	열	심	히		
하	지	않	고	있	음	을	일	깨	우	고	있	다	.	상		
대	방	의	마	음	을	상	하	게	하	거	나	불	편	하	게	
하	는	말	을	전	달	해	야	하	는	상	황	에	서	우		
리	조	상	들	은	자	신	의	생	각	을	직	설	적	으	로	
말	하	지	않	고	년	지	시	들	려	말	하	는	담	화		
관	습	을	지	니	고	있	었	다	.							

- 1 ② 2 ⑤ 3 ⑤ 4 ④
- 5**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6** 세계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세계적인 사고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한국어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 7 ⑤ 8 ③ 9 ② 10 ③ 11 ①
- 12 ④ 13 ③ 14 ⑤
- 15**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 말을 삼가야 한다는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 16 ① 17 해설 참고

1 이 글은 설명문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전개되는 것은 수필이다. ③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글은 설득하는 글이다. ④ 근거를 제시하는 문단이 주장을 제시하는 문단에 종속되는 것은 설득하는 글이다. ⑤ '현학적'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을 뜻한다. 설명문은 현학적인 어휘를 사용하기보다는 평이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①~④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로 글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⑤는 비판적 태도로 글을 평가하며 읽고 있다.

3 이 글의 주제로 (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나)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라)에 따르면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의 순화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즉 글쓴이는 언어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일으키지는 말을 하기 위해 이를 자연의 정화 작용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시간이 흐르면 언어생활이 저절로 개선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이 가지는 단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 유용한 이유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정보 검색이 빠르다는 점,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세 가지를 이미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4 ④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우려할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보기>의 자료와 같은 담화 관습이 보편화될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적절하다.

7 이 글에 제시된 정몽주와 이봉정의 사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비유와 돌려 말하기를 통해 청자의 반응이나 깨달음을 간접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시된 사례에서 유추의 방법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② 비언어적 표현은 이 글과 관련이 없다. ③ 우리 조상들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④ 정몽주의 사례에서 이방원이 회유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 자판을 치는 소리를 줄여 달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 용돈을 올려 달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문을 닫으라는 뜻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9 <단심가>는 정몽주의 일편단심의 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③ <하여가>에서 이방원은 인간사를 자연물인 '만수산 드령침'이 얽혀지는 것에 비유하여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자는 권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단심가>는 '주거주거'에서 반복법을 사용하였고, '주거주거 → 일백 번 고쳐 주거 → 백골이 진토되여'와 같이 점층법을 사용함으로써 정몽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하여가>와 <단심가>는 조선 건국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참여하는 이방원의 시각과 고려에 대한 충심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정몽주의 대립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10 <하여가>는 대구법을 통해 현실 추구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명분 추구의 삶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1 <보기>는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청강'은 백로가 자신의 몸을 씻은 장소이지 화자가 경계하는 장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12 우리 조상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넌지시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은 돌려 말하기이다. ②, ③ 광해군이 업무에 소홀한 것을 예뉘어 비판하며, 나랏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⑤ 이몽정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광해군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13 ㉠은 국립 국어원이 만든 새로운 말 '땃글'과 '누리꾼'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새 말이 사용되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은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언어의 소리와 기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 ②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성 ④ 언어는 의미라는 내용과 음성 혹은 문자라는 형식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기호라는 특성 ⑤ 언어를 통해 새로운 문장을 무수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특성

14 과일단물은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보급된 단어이다.

16 '말 가는 데 소도 간다.'에서의 '말'은 '말(馬)'로서 '말(言)'이 아니다. 말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소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남이 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노력만 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②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여 다르다는 말. ③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④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 ⑤ 상대방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 주게 된다는 말.

17 모범 답안

이	해	하	기	어	려	은	것	은	(가)	이	며	,					
그	이	유	는	한	자	어	를	지	나	치	게	많	이		사				
용	하	고	있	기	때	문	이	다	.										
	(가)	의	'	상	환	'	을	(나)	에	서	'	깊			
습	니	다	'	로	바	꾸	어	어	려	은	한	자	어	를	쉽				
게	플	어	서	쓰	고	있	다	.	또	(나)	에	서					
는	'	를	'	과	같	은	조	사	를	사	용	하	여	말					
의	의	미	를	더	잘	연	결	해	주	고	있	다	.						

1 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38~143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S#
06 ②	07 ②	08 ③	09 해설 참고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 쓰기 맥락, ㉡: 개요 작성			15 해설 참고	

01 이 글은 극 갈래 중 시나리오로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문학이다.

오답 해설 ① 시나리오의 장면으로 구성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막과 장으로 구분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심한 것은 희곡의 특징에 해당한다. ②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수필 갈래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함축성이나 감각적인 표현은 서정 갈래의 특징에 해당한다. ⑤ 이 글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 액자식 구성은 주로 서사 갈래인 소설에서 사용되는 구성 방식이다.

02 아픔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감상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가족 간에 잘못된 행동을 감싸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 글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작품이 아니다. ③ 이 글에 등장하는 여학생들의 행동이 무례하기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방관자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작품은 아니다. ⑤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픔을 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작품은 아니다. 독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03 (가)에서 아픔은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또래의 여학생들에게 약간 주눅 든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또래와 다른 외모를 지닌 아픔이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서툴고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나)에서 아픔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아픔은 자신과는 달리 밝고 구김살 없는 여학생들의 태도에 주눅이 든 것이다. ② (나)에 미라와 대수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아픔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당당하고 편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가)와 (나) 어디에서도 아픔의 우쭐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04 (나)에서 미라와 대수는 아픔과 자신들의 공통점을 말하며 아픔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③ 미라는 아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06 희곡은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많고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반면, 시나리오의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없고 장면의 전환도 자유롭다.

07 '불량한 학생들'은 아픔의 외모를 비하하며 놀리고 있으며, 심지어 어른인 대수에게까지 이기적거리면서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을 직설적으로 내뱉고 있다.

08 <보기>에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글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픔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할머니는 늙고 가난하다는 점에서 모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불량한 학생들은 아픔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에서, '너'는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기뻐한다는 점에서 모두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과 <보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성찰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에서는 구개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㉔: 중세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13 교육부와 문화 체육 관광부의 자료를 출처를 밝혀 제시했다.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출처를 밝혀 제시하면 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마)에서는 매체에서 일어나는 한국어 파괴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㉕ 현재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의 속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하는 뜻인 데 비해, ㉓는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의미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㉑ 일이 매우 힘들거나 힘들여 해 놓아도 성과가 없는 것을 의미함. ㉒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함. ㉓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㉔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의미함.

15 모범 답안

진	구	가	고	른	웃	이	예	쁘	지	않	다	(또	는
어	울	리	지	않	는	다)	는	의	미	이	다	.	

- 01 ㉔ 02 ㉕ 03 ㉕
- 04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지며, 일상적인 것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 05 해설 참고 06 ㉔ 07 ㉕ 08 ㉔
- 09 ㉔, ㉕, ㉔, ㉕ 10 ㉔ 11 ㉕ 12 ㉕
- 13 ㉔ 14 ㉔ 15 ㉔: 제가, ㉕: 내일, ㉔: 라고
- 16 ㉕ 17 ㉕ 18 ㉑ 19 ㉔ 20 ㉕
- 21 ‘수·비’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은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있다는 것과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방’이 쓰였다는 것이다.
- 22 ㉕ 23 ㉕
- 24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25 해설 참고

01 이 글은 극 갈래로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02 아픔의 상상에서 소년과 소녀의 건강한 모습과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대화는 아픔의 소망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픔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언젠가 건강해지리라는 믿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03 이 시나리오를 접한 독자들은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인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공감하는 것이다.

05 모범 답안

	<	보	기	2	>	에	서	는	서	술	자	인	’	나	(아
	름)	’	가	서	하	의	편	지	내	용	과	그	나	편	지
	를	받	았	을	때	자	신	의	생	각	,	감	정	등		
	을	자	세	하	게	서	술	하	고	있	다	.	그	런	데	
	<	보	기	1	>	로	각	색	하	면	서	서	술	자	는	등
	장	하	지	않	으	며	,	서	하	의	목	소	리	가	환	청
	으로	들	리	는	것	으로	설	정	하	여	편	지	로			
	인	해	설	레	고	흔	란	스	러	워	하	는	아	름	의	
	모	습	을	나	타	내	고	있	다	.						

06 (나)에 따르면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07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하고 밀턴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㉑ 갈릴레이와 존 스노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㉒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㉓ 서로 다른 두 입장을 소개하는 것도, 이를 절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㉕ 여러 입장이 통시적으로 제시된 것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08 콜레라가 오염된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과정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에 따르면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㉑ (가)에서, ㉓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다)에서 존 스노의 연구가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고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㉕ (라)를 통해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이나 사회, 조직의 발전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을 할 수 있다.

10 높여야 할 대상인 할아버지의 시력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바르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물건, 제품의 사이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주체인 할머니를 높여야 하므로 '차고'를 '주무시고'로 고쳐야 한다. ⑤ 어머니의 고민을 높여야 하므로 간접 높임을 사용하여 '고민이 계신'을 '고민이 있으신'으로 고쳐야 한다.

11 ㉠은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말 '주무시다'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보십시오'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로, 상대 높임 표현을 통해 청자인 여러분을 높이고 있다. ㉢: 조사 '께'와 높임말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2 ㉠은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 있다'를 통해 의자에 앉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고 있다'를 통해 의자에 앉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의 문장이다. ㉢: '-아 있다'를 통해 의자에 앉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의 문장이다. ㉣: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 있다'를 통해 의자에 앉는 동작이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 버리다'를 통해 빙수를 먹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13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그런데 '서연이는 친구의 그 말을 믿었다.'를 피동문으로 만들면 '친구의 그 말이 서연이에 의해 믿어졌다.'가 되는데, ㉢에는 부사어도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뀐 피동문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나는 멀리서 다가오는 내 남자 친구를 보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내 남자 친구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 보였다.'인데, 주어인 '내 남자 친구'에 '나'가 드러나 있고 다른 대상이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나에게'를 생략하여 표현할 수 있다.

14 ㉡의 '읽히셨다'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사절을 읽게 하신 것으로 피동 표현이 아닌 사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읽히다'는 어간 '읽-'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15 ㉠: '나'는 선생님보다 손아랫사람이므로, '내가'를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제가'라고 해야 한다. ㉡: 간접 인용 표현의 '오늘'은 어제의 다음 날이므로,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내일'이라고 해야 한다. ㉢: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조사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16 중세 국어에서는 '·뿌·페'와 같이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달·아'는 '달라'라는 뜻이다. ② '스룻·디'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이다. ③ '시·러'는 '능히'라는 뜻이며, 이어 적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뵙'은 세조 이후에 소실된 음운이다.

17 ㉠의 '쁘들(뜻을)'과 '노미(눔이)', ㉡의 '기픈(깊은)'과 '뵙(바람에)'는 이어 적기로 표기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어 적기는 한 음질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것이므로, 형태를 밝혀 적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의 '어린'은 '나이가 적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여름'은 계절이 아니라 '열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하

리'와 ㉣의 '하느니'에 쓰인 '하다'도 '행위를 하다'가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까닭'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 '전차'와 '흔들리므로'의 의미를 지닌 ㉡의 '뽕씨'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③ ㉠의 '홍 배', '뽕 씨'에 쓰인 '하'이나 ㉡과 ㉣에 쓰인 '·'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자이다. ④ 현대 국어에서라면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을 위치에서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의 '배'는 '바 + l'로 주격 조사 'l'가 사용되었고, '뽕씨'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18 저북: 동물이고 '누'가 음성 모음이므로 관형격 조사로 '의'가 붙는다. / 하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므로 관형격 조사로 '시'가 붙는다.

19 '세종어제훈민정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제 뜻을 피지 못하는 언어생활의 현실(㉡)과 이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28글자(㉣)를 만들었음이 제시되어 있다.

20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쁘·들, 뿌·페, 썩·르·미니·라' 등에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말뚝+이 → 말뚝씨(이어적기) / 놈+이 → 노미(이어적기) ② 배 → '바+l (주격 조사)' ③ 나·랏:말씨·미 → 글자 왼쪽에 점(0개, 1개, 2개)을 찍어서 평성, 거성, 상성 등 성조를 표시하였다. ⑤ 서르 → 음성 모음 'i'와 음성 모음 'r'를 같이 사용하여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22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중 한국어 사용자의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나)에 2013년 전 세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17만 명에 달하였다고 나와 있을 뿐, (가)에 제시된 표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한글 학교, 한국 학교, 대학, 초·중등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외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가 845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5 모범 답안

	첫	째	,	한	글	은	자	음	과	모	음	을	모	아	쓰	기
대	문	에	디	지	털	기	기	에	서	한	글	을	할	용	하	
면	정	보	를	빠	르	게	검	색	할	수	있	다	.			
들	째	,	한	글	은	글	자	와	소	리	가	일	치	하	는	
특	성	으	로	인	해	음	성	인	식	기	술	을	할	용		
한	기	기	에	서	유	용	하	게	쓰	인	다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